

## [포토에세이] 2학년 합동교육 - 합동순항훈련

육사신보 | 승인 2024.12.02 09:34



11월 4일 육, 해, 공군 및 국군간호사관생도 2학년 7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순항훈련전단이 진해 군항에서 출발해 20일간의 순항훈련을 끝마쳤다. 이번 훈련에는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상륙함 천자봉함(LST-II), 군수지원함 대청함(AOE),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요코스카와 미국 괌을 방문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생도들은 해군의 다양한 훈련 참여로 해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를 함양하고 타군 사관생도와 교류함으로써 합동성을 배양했다.

합동순항훈련전단은 7~10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하여 미국 및 일본 해군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7일 마라도함에서는 프레드 카처(Fred Kacher) 미 7함대 사령관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카처 사령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앞으로 미래 안보 주역이 될 사관생도들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잠해군기지사령관 예방



앤더슨 공군기지 방문

14일 밤에 도착한 훈련전단은 4일간 기항하며 주요 미군기지를 견학하고 한미교류활동을 실시했다. 15일 생도들은 미 해군기지, 미 앤더슨 공군기지, 잠 해군병원 등 주요 미군기지 견학을 통해 국제 안보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했다. 미 앤더슨 공군기지는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으로부터 탈환한 이후 태평양 일대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다.





6·25 참전용사비 참배 및 헌화



사관생도 봉사활동(한글학교 교육지원)

같은 날 생도들은 광 스키너 광장에 위치한 6·25 참전용사비를 참배, 헌화했다. 생도들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국토방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저녁, 마라도함에서는 함상 리셉션이 열렸다. 행사에는 6·25 참전 용사, 광 주지사, 광 해군기지 사령관 등이 참가하여 생도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16일에 생도들은 한인 한글학교에 방문했다. 생도들은 각 군 사관학교를 소개하고 한글을 가르치며 한인 자녀





사관생도 마린은 교육

순항훈련기간 동안 생도들은 전술기동, 함포사격, 기동군수, 헬기 이착함 훈련 등을 참관하고 해상 전투상황을 가정한 전투배치, 손상통제 훈련, 항해당직 체험, 마린은 교육을 통해 해군 작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했다. 또한, 생도들은 일본 하타카제함과의 전술기동기회훈련을 참관하며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함상리셉션



주제발표

생도들은 친교의 시간, 함상 바베큐파티 등 다양한 친목 도모 활동을 통해 타군 사관생도들과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합동성을 배양했다. 생도들은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독도, 북방한계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별 연구발표를 실시하며 군사적 지식을 쌓았다. 또한,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관찰하며 해양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어도 시각관찰

합동순항훈련전단 부연대장 생도 직책을 맡은 육군사관학교 2학년 유오성 생도는 “처음 배를 타보면서 해군이 어떻게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지 더욱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순항 훈련을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련을 통해 생도들이 타군에 대해 이해하고 합동성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장교 및 승조원을 포함한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글=강세민, 김범규 기자생도 (2학년) / 사진=2학년 교육대



육사신보 64kmanews@kma.ac.kr